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교회학교 여름행사 시작 -15일(월) 대학·청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2002년 교회학교 여름행사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금주는 대학부와 청년부가 함께 "성령이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7월15일(월)부터 18일(목)까지 충주호 리조트에서 수련회를 갖는다. 수련회 강사로는 이종운 목사, 김운호 목사, 한상은 목사가 수고하게 된다.

수련회비는 3만 5천원이며 참가하는 회원들은 무엇보다도 뜨거운 기도를 준비하여야 하며, 다음으로 성경책과 찬송가 침구, 세면도구 등을 준비하면 된다. 출발은 15일 오전 9시 교회에서 한다.

한편 **바울 선교회(50세~54세)**는 7월17일 하루일정으로 강원도 홍천강으로 수련회를 간다. 특별히 바울 선교회는 부부동반으로 수련회를 하며 많은 회원들의 참석을 요망하고 있다. 수련회 시간 중 담당교역자 이용식 목사의 특강이 있게 된다.

또한 다음주에 수련회를 시작하는 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도 현재 부서별로 수련회 준비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금년에도 재미있고 알찬 수련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은 마음껏 느끼고 열심히 기도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거듭나는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2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대선 후보자 초청 강사로-

신앙과 애국이라는 주제로 9월 첫 주부터 개강되는 제 2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커리큘럼이 윤곽을 나타내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6분의 대선 후보를 초청하여 당시 한국교회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기독교 교도소' 설립을 확답 받았던 것처럼 올해에도 벌써부터 교계 현안 문제 풀이를 위해 큰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 기독교 학교 연맹 두 기관의 후원을 받아 명실공히 한국 교회를 대표하여 정치 지도자들을 초청하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다.

이 일이 성사되어 한국 교회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도해 줄 것을 이종운 목사는 당부하고 있다.

수요 강단 소선지서 강해 시작된다

지난 5년 3개월 동안 수요 강단에서 강해되던 이사야서 강해가 지난 수요일 66장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어 이번 수요일부터는 소선지서 강해가 시작되며 첫 시간인 7월 17일에는 호세아서 1장이 "사랑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선포될 예정이다.

몽골 단기선교팀 일정 확정되다 -8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그 동안 항공사 사정으로 선교일정을 확정 못하였던 몽골 단기선교팀의 일정이 확정되었다. 몽골 단기선교팀은 오는 8월 6일 오후 4시 25분 몽골 항공편으로 출국하여 8일간의 선교 활동을 마친 후 8월 13일 오후 1시 15분 귀국하게 된다. 단기 선교팀은 몽골에서의 사역을 위한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성경말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개역개정판 출 23:16)
"Celebrate the Feast of Harvest with the first fruits of the crops you sow in your field.
"Celebrate the Feast of Ingathering at the end of the year, when you gather in your crops from the field. (NIV Ex 23:16)

2002 농촌전도대 지원자 교육 시작

충청남도 예산군 봉사면 효교 2리에 소재한 대한 예수교 장로회 목양교회로 파송받은 2002 농촌전도대의 지원자 교육이 시작되었다.

지원자 교육은 모두 5회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며 각 교육일정은 다음과 같다. 교육은 주일 3부 예배 후 104 호에서 한다.

교육차수	일시	강사	강의
1차교육	7월 7일(주)	이성득 목사	오리엔테이션
2차교육	7월 21일(주)	이성득 목사 조대영 전도사	전도교육·성경학교 교육
3차교육	7월 28일(주)	이성득 목사	전도대교육·기도회·특강
4차교육	8월 2일(금)	이성득 목사	총점검(전도교육 교재다루기)
5차교육	8월 4일(주)	이성득 목사	총점검

또한 2002 농촌 전도대의 필요한 물품은 다음과 같다.

시설물품으로는 선풍기 9대, 수은조명등, 전기 콘센트, 전기선, 형광등, 햇빛 차광막, 돛자리, 비닐, 밥상이며 전도물품은 돛보기 100개, 비누(선물용) 300개, 수건(선물용) 300장, 치약(선물용) 300개 휴지(전도용) 500개, 부채(전도용) 500개, 의료품으로는 비상약, 모기향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용품으로는 이·미용 기구 및 재료이며 홍보용 물품으로는 유니폼 T-shirt 110벌(성인-60, 아동-50)이다. 목양교회 지봉 보수(슬라브)에 필요한 물품은 시멘트, 모래 2.5 ton, 방수액 2통, 발수제, 수성페인트, 빗자루, 나일론 밧줄 등이다. 목양교회는 1972년 교회가 설립되어 현재 인태근 목사가 시무하고 있으며 장년 20명, 중고등부 10명, 유초등부: 10명이 출석 하고 있다.

농촌 전도대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도 끊임없는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길 바란다.

중등부 교사·학부모 연합기도회 7월 20일(토) 오후 5시

중등부는 오는 7월 29일(월)~31(수)까지 3일간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갖는 여름수련회와 학생들을 위한 교사·학부모 연합기도회를 20일(토) 501호에서 갖는다.

교사는 물론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이번 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하기 바란다.

이시아서 강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죄들

(이사야 65장 1 - 7절)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은 사람의 죄가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공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신 32:3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기 선지자 말라기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말 3:16)고, 사도 요한은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시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계 20:12-15)고, 또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 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렘 17:1) 이라고, 다니엘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단 7:10)고 하나님의 책에 사람들의 죄가 기록되었음을 말씀합니다.

회개한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만 범한 죄는 망각되지 않습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께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계 20:13) 심판하십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고후 5:10)

그에 상당한 보응을 하십니다. 본문 6절에는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 책은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어 항상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여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눅 6:38).

하나님은 죄값을 물으시되 반드시 그들의 품에까지 보응하리라고 하십니다. 이시아서 65장은 선지자가 64장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입니다.

1. 이방인을 불러 백성을 삼으실 것을 예언하심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1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본문 1절을 인용하면서 "이시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롬 10:20-21)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품으시려고 손을 벌리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신자들이 예상치 못하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고전 1:27-28).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시어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중운 목사

죄를 감추거나 회개를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그를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련함, 약함, 천함, 멸시받음은 오히려 복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2. 패역한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회개를 권고하심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2절).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패역한 길로 가므로 결국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래 참으시며 종일 손을 펴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3.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죄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동산에서 제사함

"동산에서 제사하며"(3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때 이방 풍속을 행하여 나무를 숭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② 돌 위에서 분향함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3절).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법을 어기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므로 하나님을 격동시켰습니다.

③ 무덤 사이에 앉음

"무덤 사이에 앉으며"(4절). 무덤 사이에 앉은 것은 죽은 자들에게서 어떤 계시를 받으려는 이방풍속이며 이스라엘은 이를 행했습니다.

④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샘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4절).

이것은 산 속의 동굴이나 혹은 신당 같은 곳에서 꿈같은 계시를 기다리는 이방풍속입니다.

⑤ 돼지고기를 먹음

"돼지고기를 먹으며"(4절). 구약에서는 먹을만한 생물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것과 새김질하는 동물은 먹되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낙타, 사반, 토끼)이나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 새김질 못하는 돼지는 부정하므로 이런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시체도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기를 금한 돼지고기를 먹을 뿐 아니라 우상의 제물로도 사용했습니다. 이것 역시 바벨론의 풍습을 따른 것입니다.

⑥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음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4절). 가증한 것들의 고기 조각을 그릇에 담은 것은 이교도들이 점을 치기 위해 했던 일입니다.

⑦ 거룩을 가장하며 가증스런 행동을 함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5절).

이스라엘은 온갖 가증스런 행동을 하면서도 그 행동들이 자기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가증한 행동으로 스스로 더러워진 것은 모르고 다른 사람을 속되게 여기고 자신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교도의 미신 풍습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거룩한 행실인 줄로 알고 교만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미워하시어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5절)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종일 타는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패역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7절).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 앞에 펼쳐진 책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응하시되 정확하게 그들 자신에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6절이 기소라면, 7절은 판결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의 죄와 조상들의 과거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들의 죄는 우상숭배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쌓아놓은 죄를 헤아리시고 이에 정확한 보응을 그들에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감추거나 회개를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그를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심판 날에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우기업탐방

최학인 장로 (5교구)

최학인 장로님이 수의학을 전공한 수의사라면 고개를 갸우뚱하며 놀랄 교인이 많을 것 같다. 그는 수의사로서 개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청년이 될 때까지 축협에서 수의사로서 일을 했고 지금도 수의사와 무관하지 않은 (주)마니커치킨의 품질관리실장으로 일한다. 마니커치킨의 제품은 최 장로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도 시중으로 나오지 못한다.

평양에서 도편수(궁궐을 짓는 책임자)를 지내시던 증조부께서 선교사의 사택을 지은 일을 인연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지금까지 최장로의 가정은 5대째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다. 선친은 송의여교 교목으로 오랫동안 계셨고 집안에 목사님이 여러분이시다. 그렇기에 기독교문화는 그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 일뿐이다.

74년 결혼한 최소희 권사와는 대학 졸업 후 잠시 다니던 제약회사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당시 최 권사가 근무하던 홀트아동복지회는 최 장로가 다니던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소아 백신을 보급 받았었고, 보급하는 일을 하던 동료가 두 사람을 소개했다. 슬하에 수정, 광혁 남매를 두었다. 수정이는 사랑부에서 반주로 수고하고, 광혁이는 7년 동안 초등부교사와 찬양대에서 봉사하다가 공군장교로 입대하여 지난달에 임관을 했다. 아버지가 최 장로 형제를 위하여 그러셨듯이 최 장로 역시 무엇보다 아이들이 믿음의 장부들로 자라기를 기도했고, 지금까지 아무런 갈등 없



이 교회에 한결같이 열심히 아이들을 보고있으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모태신앙을 소유한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미지근한 믿음을 고민한다. 그런 이들에게 최 장로는 모태신앙인도 '예수에 미쳤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일침을 가한다. 자신도, 자신의 아이들도 모태신앙이다. 그래서 그는 차지도 밟지도 않은 침퉁에 빠지지 않고 예수에 미치려고 노력한다. 물론 그에게도 신앙보다 젊은 패기가 앞서 믿음이 침체에 빠진적이 있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사회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할 때가 비밀이재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때리시며 강권적으로 인도하셨다.

그는 자신이 믿음에 나태할 때마다 아이들이 건강을 치시며 정신이 번쩍 나게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사인도 아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리라.

최 장로 가정은 95년 서울교회를 찾은 후 1년을 소리 없이 다니다가 96년에 등록했다. 그는 무등록교인으로 다니던 1년 동안 객관적인 입장으로 서울교회를 바라볼 수 있었고 서울교회 교인들의 저력에 내심 놀랐다. 남의집살이를 하면서 목회자세미나며 캠프세미나, 각종 봉사활동, 그리고 성전건축까지. 무섭게 일하는 교인들을 보며 자신도 교회 일이라면 참으로 열심히라고 생각했는데 서울교회 교인들은 한 수 위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 는 네 식구 모두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맨이 되었다.

최장로는 지금 찬양대의 성경공부반 교사로 베들레헴 찬양대원으로 그리고 교구장, 다락방장으로 교회를 섬기고, 최 권사 역시 이에 질세라 시온, 할렘루야 찬양대원으로 전도회 회계로 다락방장으로 수고한다.

최학인 장로에게는 요즘 기도제목이 두 가지 더 늘었다. 몽골단기선교팀에 합류한 아내와 딸 수정이가 건강하게 선교를 잘 하고 돌아오도록, 그리고 광혁이가 군에 있는 동안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그러나 무엇이 걱정이라!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허숙 (편집부)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청년부 회장노창훈

월드컵으로 전국이 들썩거리던 6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경기를 화면으로 보고, 다시 또 보지만, 그 감격과 기쁨은 이제 변함없이 이어지는 일상에 자리를 조금씩 내주고 있습니다. 기쁘기만 했던 한 달을 보내고 지금은 다시 더운 여름, 7월의 한 가운데입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 일상을 돌아볼 때입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월드컵의 열기를 국운운성의 기회로 삼자는 구호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를 돌아봅시다. 나 개인의 발전과 나의 생활에는 별다른 변화가 있나요? 너무 잘 만들어진 영화 한 편을 보고 난 기분과도 같지 않나요? 영화는 끝났고, 나는 집에 가는 마지막 지하철을 타기 위해 뛰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축제와 기쁨의 한 달이 끝나고 이젠 다시 일상이 이어집니다. 잠시 잊었던 인생의 짐을 다시 끌고 가야 합니다.

언제나 그래왔지만, 버거운 우리의 짐은 변함없이 우리의 등에 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월드컵에 결코 뒤지지 않으며, 짧게 끝나지도 않을 즐거움이



중·고등부 · 대학부 · 청년부
여름수련회

젊은 당신을
초대합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영성의 축제, 2002년 대학 청년부 연합 여름 수련회가 7월 15일부터 7/18일까지 열립니다.

4번의 성경공부와 3번의 저녁집회, 특강을 통한 풍성한 말씀의 잔치가 있습니다. 토요일집회를 통해 더욱 뜨거워진 대학, 청년부 연합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도 있습니다.

밤 늦도록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도 준비됩니다. 이 여름을 결코 잊지 못하게 할, 넓은 야외수영장에서의 물놀이도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어머세요. 월드컵을 기다렸던 마음이 이 수련회에 비길 수 있을까요?

"성령이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대학부와 청년부가 함께 경험하려 떠납니다. 젊은 당신을 초대합니다.

(어떻게 가나요? 7월15일 오전 9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하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는 사람이 되자**
오광환 집사(고등부 부장)

올해 여름, 우리교회 중·고등부가 가나안 농군학교로 여름수련회를 떠납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가나안 농군학교는 김용기 장로님이 "하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하신 곳으로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는 것. 또한 이웃을 거저없이 사랑하며 모든 인간들이 복되게 살아가자는 복된 운동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 ① 믿음의 생활화를 통한 신앙훈련으로 변화하는 세상을 신앙으로 개척해 나갈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고
- ② 대자연의 숨결을 실제로 체험시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화합의 정신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며
- ③ 규율 있는 조직생활을 통한 공동체 생활을 체험하므로 함께 사는 멋진 공동사회를 지향하고 가치 있게 여기도록 하고
- ④ 실제생활을 전제로 한 도덕과 윤리 함양훈련으로 정의롭고 도덕적이며 평화롭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진지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 ⑤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근검, 절약, 협동, 희생과 인내하는 습관을 체험시키고 실천할 수 있게 한다는 5가지 교육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나안농군학교의 입교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도전을 주며 생활에 변화를 받는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기 우선, 공부 우선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우선의 사고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미래를 향한 큰 비전을 갖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공부를 마치며



이영자 집사(11교구)

오한복음, 사도행전 강해 설교가 끝나고 이사야서를 시작하던 첫 주, 66장까지의 긴 선지서이기에 앞으로 몇 년의 긴 세월이 지나야 마치겠느냐고 생각했는데 벌써 5년 3개월이 지났다고 하니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결코 길다고 느껴지지 않았고 지금은 오히려 서운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 주홍 같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 깊은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사1:18).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절대사랑인 모성애에 비유하시며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공허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사 49:15).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은 질병과 고통의 긴 터널 속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

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이렇게 주옥같은 말씀을 듣는 동안 저는 저러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녹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년 3개월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던 큰딸과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다니고 있고, 중학생이던 막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대학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기르는 동안 저에게는 이사야 선지자의 질책과 교훈과 위로가 함께 했습니다.

호산나 성가대에서는 찬양 준비 전 설교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설교 후에는 주신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연습에 임했습니다. 지난 5년 3개월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 길로 갔을 지라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아오게 하시며 약속 된 축복 속에 다시 거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느끼던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긴 시간동안 준비하신 말씀을 아낌없이 먹여주신 목사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도 진주보다 귀한 말씀들이 서울교회 온 성도들에게 퍼져서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큰 보람을 느끼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이 서울교회 온 성도들에게 귀한 양식이 되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자기 몫을 다하는 삶을 사는데 큰 힘이 되었음을 믿으며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하셨어요?

성경을 일독하면 서울교회 로고가 새겨진 부부찬전을 주시겠다는 목사님의 갑작스런 발표가 있는 지 벌써 한 달이 훨씬 지났네요.

그때는 저마다 성경을 통독하겠다고 결심했을 텐데 혹시 그 결심이 흐려지거나 아주 잊어버리신 분은 안계신지요.

아내가 부부찬전을 받으면 함께 차를 마시겠다고 아내의 성경 읽기를 독려하는 양체 남편도 계시다는데요.

지금 읽고 계신 분은 더 열심히, 까맣게 잊어버리셨던 분은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 신임 교역자연락처 †

이름	자택	휴대 전화
한상은 목사	428-9307	018-276-4597
오정식 목사	401-5407	017-722-4959
이용식 목사	2247-1527	018-228-8673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8일(목) 군선교 신학회를 소집하고 기조연설을 한다.

■ 이갑진 장로(12교구, 영어성경부 부장)은 월드컵 선수단 단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로 정부로 부터 명호장 훈장을 받았다. 피아노 1대를 교회에 기증했다.

■ 이사: 12교구, 김지웅, 전성신 성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15-4호 2층

■ 특녀: 12교구, 김지웅, 전성신 성도, 7월 4일 특녀

■ 기증: 이동만 집사 베들레헴 찬양대 지휘자복 기증

■ 이전개업: 김금자 성도(2교구) 행운 첼판집 (540-4769)

김영주 성도(4교구) 북경한의원(563-6880)

☒ 금주의 식사제공: 이종윤 목사·홍순복 사모 가정 (외손자 노아의 백일을 감사하며)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HLKY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탐방 - 청년부 Q.T

아침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잠들어 있을 시각, 새벽기도회를 마친 오전 6시 30분이면, 6층 청년부실에서는 어김없이 청년부 새벽모임이 이어지고 있다. 순례자는 Q.T와 기도로 이른 아침을 여는 아름다운 청년들을 만나보았다.

주일의 성장한 모습들과는 달리 화장기 없이 수수한 모습으로 자그마한 원탁에 둘러앉은 청년들 앞에는 성경과 생명의 말씀(매일 Q.T 교재, 두란노)만이 놓여 있었다.

숨소리마저 아끼며 고요히 말씀을 묵상하는 청년들은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비전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손계영 간사(청년부)의 인도로 이루어지는 새벽 모임에는 보통 5-8명의 청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각자의 일터와 학교로 향하기 전, 한 시간 여의 시간 동안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으로 드린 지 벌써 석 달째에 접어들고 있다. 각자 Q.T 노트를 펼치고 20여 분간 말씀에 빠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지난 후에

는 서로의 은혜를 나누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새벽기도회와 말씀 묵상에서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들이 풍성하게 넘쳐났다. 마침 하나님의 언약제가 예루살렘 다윗의 성으로 들어오는 구절(역대상 25:25-29)에서 다윗이 기뻐 춤추는 장면을 접한 청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하고 기뻐 찬양하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저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다.

커다란 청년부실에 모인 아침 청년들은 6명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적지 않았다. 이른 아침 일어난 청년들의 뱃속 시계 꼬르륵 소리처럼 영육간에 갑갑한 심령들이었지만 그들은 풍요로워 보였다. 말씀을 사모하며 매일 아침 신선한 은혜를 받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밝고 건강한 얼굴로 기쁨에 충만해 보였다.

개인기도와 청년부 공동체, 여름수련회, 그리고 교회를 위해 통성기도를 드리고 원탁에서 일어난 청년들은 분주하게 가방을 꾸려 각자의 일터와 학교로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조용한 예배당 한 구석에서 하루를 여는 이들 속에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일었다.

나소정 (편집부)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몽골 단기선교팀, 농촌 전도팀의 승리와 아시아 로잔대회 성공을 위하여
2. 여름성경학교·수련회가 은혜중에 준비되고 시행되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일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